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정치학 교수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 들어서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례 없는 압승을 했다. 국민들은 코로나 국난 앞에 '견제' 보다 '안정' 을 택했다. 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포함해 네 차례 연속 승리한 최초의 정당이 됐다.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은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까지 독자치하면서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됐다.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고,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주는 함의는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주류 세력인 보수

승자의 제주에서 벗어나라

산업화 세력이 진보 민주화 세력으로 교체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보수-진보 양당 체제'가 무너지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보 좌파 1.5 정당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차지하는 의석은 1이고, 그 이외 정당들은 모두 합쳐도 0.5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다. 일본 자민당이 1955년 창당부터 50년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런 정당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해한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8년 8월 5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국 순회 연설회에서 "2020년 압도적 총선 승리와 2022년 재집권을 통해 앞으로 20~30년은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승자의 제주'(winner's curse)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세일러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기업이 M&A 경쟁에서 매물로 나온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특정 정당이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결과적으로 패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을 빚대어 사용될 수 있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공천 파동에도 불구하고 153석을 획득했다. 여기에 '친박 연대' 14석과 '친박 무소속 연대' 13명을 더하면 범여 의석은 180석이나 됐다.

그런데 총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 현재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박근혜 대표와 내전이 시작됐다. 필자가 2010년 10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권교체라는 응답이 무려 33.6%나 됐다. 박 전 대표는 전략적으로 국민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종일관 '여당속의 야당'이라는 이미지 마케팅을 구사했다. 현직 대통령과의 이런 차별화 전략이 2012년 대선에서 인기 없는 여당인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51.6%의 득표로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 정치에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것은 거의 철칙에 가깝다. 그러나 조국·임종석 등과 같은 현재 권력인 대통령 세력(친문)과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미니 대선인 중도에서 낙승한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

으로 하는 미래 권력(친이) 간에 대권을 둘러싸고 앞으로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다. 이런 갈등은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이 끝나는 시점인 올 연말부터 본격화될 개연성이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만들려다가 민주당으로부터 팽당한 원로 진보 인사들이 중심된 정치개혁연합 세력과 친문-친조국 세력 간의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진보의 분열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분열될 수 있다.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분명, 민주당이 이긴 것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긴 것이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19가 없었다면 압승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 성과에 대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전체 받지 않는 권력은 위협하다. 민주당이 승리에도 취한 나머지, '협치와 포용' 보다 극단과 배제의 정치에 몰입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승자의 제주'가 될 수 있다. 이제부터 통합과 공존의 중도에서 낙승한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

社說

호남 정치 복원 위한 담대한 도전 펼쳐라

21대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가 180석에 달해 1990년 3당 합당 이후 30년 만에 여당이 절대 의석을 확보했다. 시선을 광주·전남으로 돌리면 4년 만에 '녹색 돌풍'이 '정색 폭풍'으로 바뀌었다. 20대 총선에선 국민의당이 광주·전남 18석 가운데 16석을 차지했지만 21대 총선에선 4년전 1석에 불과하던 민주당이 18석을 씩쓸어 했다.

이번 총선의 특징은 민주당 석권 외에 13명이 초선일 정도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3선 이상 지역 중진의원 6명을 제치고 국회에 입성했다. 학생 운동권 출신의 586과 법조인들이 주축을 이룬 가운데 행정 관료와 대기업 임원 및 언론인 출신 등 다양한 경력도 눈여겨 볼 점이다. 광역의원 과 차지단체장 경력 등 풍부리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

이다. 대다수가 초·재선이다 보니 강력한 리더십이나 정치적 대중성이 약해 호남 정치 복원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양당 체제에서 지역 의원들의 경량파가 일천해 당내 목소리가 희석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나마 20대 국회에선 국민의당과의 경쟁 구도로 인해 민주당 차원에서 호남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번 민주당 독식 구조하에선 지역 현안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적인 과제를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역 의원들이 뜻을 한데 모아야 한다. 초·재선으로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연대로 민주당내에서 세를 확보함으로써 득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역위원장 자리 다툼 신경전이 벌어진다는 소리가 들린다. 동네 골목대장에 머문다면 호남 정치의 미래는 없다. 세대교체의 기회를 준 지역민들에 보답하는 것은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한 큰 정치를 하는 것이다.

초중고 2차 온라인 개학 학생 불편 없도록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교 1~2학년 등 초등 1~3학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제부터 일제히 온라인 원격수업을 시작했다. 지난 9일 1차 온라인 개학에 이어 2차 개학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접속 불안정과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내에서는 학내 인터넷 망을 중·고 전체 및 35학급 이상 33개 초등학교의 경우 500MB에서 1GB로 증속했지만 불안정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 이용하는 원격수업 플랫폼(학습관리시스템)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학습터가 불안정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은 것이다. 접속이 잘 되지 않거나 교사가 올린 영상을 내려받아 재생하는 과정에서 접속 오류가 잦았다. 학급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위두랑은 오류

가 발생해 KERIS 측에서 아예 프로그램을 단았다. 전남 지역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 당국과 교사 등 교육 주체가 충분한 준비를 할 겨를이 없이 온라인 개학을 한 탓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1차 개학을 한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점은 우려스럽다. 당국이 1차 개학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안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수업 역시 실시간 쌍방향형이 아닌 콘텐트 활용형이나 과제 수행형 방식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학생들이 흥미를 잃는 등 수업의 질도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학생의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준비가 되지 않은 온라인 개학의 피해를 더 이상 학생들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교칼럼

부활!



황성호
신부-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말할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 내느냐, 살아 내지 못하느냐에 따라 참된 신앙인인가 아니면 거짓된 신앙인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죽음이 있어야 한다. 자신 스스로를 희생해야 가능한 삶이 부활이다. 말할 하나의 죽음, 곧 말할이 땅에서 자신을 싹 혀야만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어 많은 열매까지 맺게 된다.

예수가 말씀하신 죽음은 당신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다. 예수의 모든 것, 특히 죽음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예수는 당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의 죽음을로부터 구원되기를 바라셨다. 곧 예수의 죽음은 인간 생애 여정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 이것을 예수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명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가톨릭 신앙인이며 성직자로 사는 필자는 예수께서 사셨던, 벗을 위한 죽음이 주는 생명의 의미를 알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도 이 의미를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 내려 하는데 쉽지 않다. 왜 타인의 삶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못하는가? 왜 타인을 위

해 죽으려고 하지 않는가? 왜 나의 것을 그토록 내놓지 못하는가? 우리 각자 스스로는 이런 의문과 반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문이 없으면 무지하고, 반성이 없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문과 반성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해결점을 찾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옳다고 생각하며 마음 두었던 가치들이 허황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며 게걸스런 돼지처럼 탐욕을 부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재앙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엿봤다. 확진자가 많았던 대구로 달려간 수많은 의료인들과 소방대원들, 몸을 아끼지 않고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을 치료했던 간호장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소중함을 되찾았다. 이들의 희생이 사람을 살렸고, 이들의 노고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을 회복시켰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던질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의료진과 소방대원들은 의무감 때문에 달려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달려왔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우리 생명의 유지는 누군가의 희생, 곧 죽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다.

예수 부활 시기를 보내는 가톨릭교회는 모든 미사와 모임을 중단하고 있다. 코로나19 중독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다. 예수가 죽음을 이겨 부활하심을 모두가 모여 기억하는 시기지만, 종교는 사회와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 부활의 의미와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깊게 생각해보자.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트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기고

4·19 혁명 60주년을 기념하며



이병열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창

4·19 혁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최초로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역사로, 헌법 전문에 3·1 독립운동과 더불어 4·19 민주 이념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필자는 1960년 4·19 당시 광주 4·19를 주도했는데 60년 세월이 흘러 80대가 되었다 4·19 민주혁명 60주년을 맞아 당시를 회고한다.

4·19 혁명은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를 자유당 정권이 영구 집권을 위해 선거당일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 투표 등 부정 선거로 국민 주권과 참정권을 박탈한 데서 발발되었다. 이에 분노한 전국 학생과 국민이 일제히 봉기해 자유당 정권을 무너 뜨리고 제2 공화국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 과정은 1960년 3·15 부정 선거 반대 시위로 숨진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27일만에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시작했다. 그해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3·15 부

정 선거 반대 시위를 하던 중 자유당이 정치 강패를 동원해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전국민이 분노하게 된다. 4월 19일에는 전국 대도시 학생과 국민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 다발적으로 '자유당 독재 정권 타도하자' '3·15 부정 선거 타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당시 투석전과 총격전으로 사망 186명, 부상 602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광주에서는 광주고등학교 학생 열 명과 조대부고생 한 명이 4월 18일 밤 8시경 광주고 3학년 이홍길의 허수방에서 4월 19일 1교시 시작과 동시에 난타 종소리에 따라 운동장에 집결, 각 고등학교로 달려가 봉기 사실을 알려 동참을 요청하도록 모의하였다. 타중수와 1·2학년 각반 선동자도 정하였다. 부고는 광고 봉기 사실을 전하면 동참기로 하였다.

그러나 모의 사실은 경찰로 새 나가 19일 아침 모의에 참가했던 학생 전원과 반장들은 교장실로 불러갔고 학교 교문은 경찰과 교사들이 봉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암암리에 전교생들 사이에서 우리도 정의와 자유를 위해 일어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심전심으로 퍼져 나갔다. 하지만 1교시가 끝나도 난타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2교시가 시작되자 필자 옆자리에 있던 정원재 학생이 선생님이 후판에 글을 쓰

는 순간 사전에 열어 놔둔 뒷문으로 종을 치러 갔다. 잠시 후 10시 20분경 난타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광주 4·19의 시작점이 울린 것이다. 난타 종소리를 들은 학생들은 교실에서 뛰쳐나와 운동장에 전교생이 집결하였고, 시내 각 고등학교로 달려가 광고 봉기 사실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기로 했다. 그때 교장실에 갇혀 있던 모의 참가자 및 반장들은 유리창문을 깨고 뛰쳐나와 합세했다. 3학년이 선봉에서 서서 시내 각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 교문으로 달려갔다. 학생들이 경찰, 교사들과 승강이를 벌이던 교문을 무너뜨려 마침내 광주 4·19의 물꼬가 터졌다. 오전 10시 30분경이었다.

교문과 후문으로 나온 학생들 다수는 계림오거리 방향으로, 일부는 경양방죽이나 계림초교 방향으로 달려갔다. 다수 학생은 계림오거리에서 경찰의 강력 저지로 대열이 와해되면서 불잡혀 갔다. 일부 학생들은 그 틈새를 빠져나가 전남여고와 광주여고, 공고, 조대부고, 숭실고, 수피아여고로 달려갔다. 다른 일부는 일고, 농고에, 또 다른 일부는 상고, 광주사범 등에 광고의 봉기 사실을 알리며 동참을 호소했다. 당시 각 학교는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 이를 피해 가며 활동했지만 공고 부근에서 많이 불들려 갔다.

오후 2~3시경 광고와 부고, 공고, 상고, 숭실고, 광주여고, 농고는 전교 학생

들이, 광주사범과 일고, 수피아, 전남여고는 소수의 학생이 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 충장로를 뒤덮었다. 도청 앞까지 가는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소방차가 물대포를 쏘자 학생들은 투석전으로 대항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수천의 피켓을 학생들의 투석전을 제압하지 못했다.

오후 5시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투석 폭포는 정의와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서·파출소와 시위를 방해하는 소방서였다. 4월 19일 저녁 9시경 학생들은 당시 광주경찰서(현 동부경찰서)를 투석하고자 진격하였다. 경찰은 최루탄과 공포탄을 쏘다 제압되지 않자 9시 20분 경찰 돌격대가 나와 실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추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 8명(경찰 1명 포함)과 부상자 59명이 발생했고 시위대는 쏟아지는 빗방울과 함께 땀방울이 흘려졌다. 이로써 4월 19일은 민주화를 위한 희생의 역사로 길이 기억되게 됐고 그 중심에는 광주가 있었다.

광주는 불의에 항거한 3대 민주화쟁인 학생독립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 자랑스런 역사 문화 자산을 갖고 있다. 우리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이러한 문화 자산을 선양하고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과 연계시켜 광주 발전의 에너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무관중 경기는 관중석을 폐쇄해 관객 없이 치르는 경기를 말한다. 보통 사고를 일으킨 구단에 대한 징계가 원인이지만, 시설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2012년 팬이 경기장에 난입한 사건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열린 인천-포항 경기가 최초의 무관중 경기였다.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북한과 북한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도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다. 야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2015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오리올스의 홈경기에만 관중을 완전히 비웠다.

무관중 경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막이 무기한 연기된 메이저리그는 지금 무관중 경기 개막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우선 야구에 목마른 팬들에게 TV로 경기를 보여 주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정도에 맞춰 점차적으로 관중을 입장시킨다는 복안이다. 날씨가 따뜻하고 ML 구단들의 스폰서 캠프가 모여 있는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에서 일단 정규리그를 시작하지는 것이다. 선수들도 사대 초기엔 반대 목소리

가 컸지만 시즌 개막이 연기된 경기보다 무관중 경기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 축구 또한 다르지 않다. 이대로 가면 '팀도 리그도 파산'이라는 위기감 속에 독일 분데스리가가 5월 초부터 무관중 경기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25라운드까지 소화한 시즌을 최소한 6월 중으로는 마쳐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이다. 27라운드를 치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나 29라운드까지 마친 영국 프리미어리그 역시 빨리

리그 자체가 취소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관중 경기라도 열여리고를 할래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명대 이하로 떨어져 진정 국면을 보임에 따라 국내 프로야구도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결의로 돌아온다. 한국야구위원회는 5월 초 프로야구 개막을 목표로, 21일부터 팀당 4경기씩 총 20경기를 무관중 연습 경기로 치르기로 했다. 숙박 없이 당일치기 원정 경기로 시작해 점차 관중을 불러들이자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콕' 생활에 지친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광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